

4·11 선거

저마다 승리 자신 막판 '기싸움' 팽팽

◇광주 동구=8명의 후보 중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무소속 양형일·박주선·이병훈 후보 등은 서로 승리를 장담하며 막판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양 후보 측은 전직 동장 '기싸움' 사건 이후 지지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민심이 양 후보 쪽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선거 막판까지 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투신자살' 사건 이후 주춤했던 지지세가 선거일을 앞두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존 조직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자체 분석결과 지지도가 급상승하며 당선이 확실시된다"며 선거당일 부동층의 상당수인 젊은 층이 투표에 가세할 경우 막판 전세역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투표를 독려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나머지 후보들도 부동층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며 이번을 기해하고 있다.

◇광주 서구 갑=민주통합당 여성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 모두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후보는 선거당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이 지지에 나서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의 잘못된 공천'을 주장하며 '인물론'으로 맞서고 있는 무소속 조영택 후보도 승기를 잡았다고 보고 막판 부동층 잡기에 주력하고 있다. 조 후보 측은 밀바닥 민심이 '민주당

■ 광주·전남 격전지 5곳 표심잡기 총력전

4·11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광주·전남지역의 이른바 '격전 지역' 후보들은 막판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부동층을 공략했다. 각 후보들은 "밀바닥 민심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승리를 자신하며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날인 10일 자정까지 '표심 끌어안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광주 동구, 예측불허 속 부동표 끌어안기 광주 서갑·서을, 바닥민심에 끌려 호소 나주화순·순천곡성, 접전 속 선두 굳히기

의 잘못된 공천'에 대해 공감하며 표심이 조 후보 측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자신했다. 박 후보와 조 후보는 이날도 박 후보의 '허위경력 기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쳤다. 무소속 송갑석 후보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을 연쇄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후보 측은 20대를 비롯한 30대와 40대 중년층의 지지가 상대 후보들보다 높은 만큼 이들의 투표가 이뤄질 경우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

◇광주 서구 을=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야권연대 단일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는 각자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선거 전날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부동층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역발전전을 위한 '인물론'을, 오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 안 된다. 광주의 양심을 지켜달라'고 맞서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바닥 민심이 좋은 만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고, 오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어 득표율 5%P 이상 차이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 선거구 중 가장 치열한 경쟁지역 답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총력 유세전을 하며 막판 부동층 잡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나주·화순=민주통합당 배기운 후보는 선거 막판 통합진보당 전종덕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와 '그래도 민주당'이라는 심리가 유권자 사이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승리를 낙관했다. 배 후보 측은 야권단일화에 대한 시너

지 효과와 함께 최근 이어진 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등에 힘입어 '민주당 바람'이 선거일 강하게 불 것으로 전망하고, 막판 바다 민심을 다졌다.

무소속 최인기 후보 측은 배 후보와 10%P 이상의 득표율 차이를 보이며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최 후보 측은 "민주당이 KTX 호남선 정차역과 관련, 나주역 경우를 배제한 것에 대해 나주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KTX 나주역 경우 문제가 선거이슈로 떠오르면서 최 후보의 선두 굳히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순천·곡성=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민주통합당 노관규,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는 서로 승리를 자신하며 선거운동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아끼지 않고 지지세를 넓히는데 주력했다.

노 후보는 이날 자정까지 지역구 곳곳을 돌며 "정권교체를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대안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며 "또 정원박 달회를 성공시키고 곡성을 심비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웹진모바일에서 "서민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온몸을 다해 일하라는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다"며 "소중한 말을 가슴에 보듬고 서민정치를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11 총선 현장

박주선 "지역민 갈등 해소 앞장"

무소속 박주선 광주 동구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과정로 흑색선전과 함께 고소고발이 난무해 민주당원은 물론 지역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며 "당선된다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통합의 동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유세현장을 찾아와 촛불유세를 펼쳤는데, 11일은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지였던 광주가 또다시 위대한 선택을 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원, 대학생 적극 투표 독려

통합진보당 이민원 광주 남구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당선되면 특정정당의 독점으로 점철된 광주 정치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고, 민주통합당 자격으로 불가능한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권리는 누군가에 의해 빼앗기게 된다"며 "대학생 50%가 투표하면 반값등록금, 100%가 투표하면 무상등록금이 실현된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재연 "민생안전 특별법 제정"

통합진보당 이재연 광주 북구 갑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서민고통해소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골목상권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민생안정특별법에는 재벌과 외국자본의 횡포를 규제하고 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무이자로 하는 것은 물론 고리사채에 대한 대출을 반값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설명했다.

김경진 "복합 변화·쇄신 기대"

무소속 김경진 광주 북구 갑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물풍의 진원지였던 북구 갑에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투표로 이어질

김동철 "MB정권 표로 심판하자"

민주통합당 김동철 광주 광산 갑 후보는 10일 "이번 총선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며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막근에 비대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유권자들"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지 못하면 서민들의 삶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총선 관전포인트

4·11 총선 레이스의 종점을 목전에 둔 10일 지역정가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지역구도를 쏠 수 있을지 또는 야권연대가 파괴력을 가질지 등을 놓고 갖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또 무소속 후보가 선전할지,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할지, 곳은 날씨가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구도 깨지나=광주 서구을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광주·전남은 민정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져 온 보수정당에 27년간 단 1석도 내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 후보가 이번엔 당선되면 이철우성을 깨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오만한' 민주당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민심

새누리 후보 지역구도 꺾자 야권연대 효과·무소속 돌풍은

이 들끓고 있어 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서구를 유권자들이 30년 가까이 거부해 온 보수정당 투표를 감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해 승패를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다.

◇야권연대 파괴력=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이 지역에서 성공할지도 주목거리다. 양당은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광주 서구를 야권연대지역으로 선정, 통합진보당 오병윤 후보를 단일후보로 내세웠다. 특히 선거 막판까지 새누리당 후보가 서구에서 강세를 유지하자 통합진보당은 이곳의 연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주·화순과 광주 서구갑에서도 자당 후보를 사퇴시키며 민주당 후보로 2차 단일화를 했다. 이 3곳에서 야권연대 효과가 나타날지는 아직 도 오리무중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공통된 분석이다.

◇무소속 돌풍=무소속 출마자는 광주 15명, 전남 21명 등 36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잘못된 민주당 공천에 대한 심판"을 주장하며 지지세를 넓혀가고 있다. 이날 현재 민주당이 무공천한 광주 동구와 나주·화순, 광주서구갑, 광주북구를 등에서 무소속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출신 수도권 후보들 "도와주세요"

김효석·조순웅·신기남 등 호남향우회 '구애' 작전

4·11 총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호남향우회 등 주요 지지층을 향한 광주·전남지역 출신 민주당 통합당 소속 수도권 후보들의 구애(?) 열기가 뜨겁다. 10일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 선거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효석(서울 강서 을)·조순웅(서울 용산)·이용선(서울 양천 을)·신기남(서울 강서 갑) 후보 등 수도권 경합지역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당수 민주당 후보들이 지원 유세 또는 호남향우회 연결 등 도움

의 지원유세 또는 호남향우회 연결 등 작·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박지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구 민주당계 당원들과 호남 향우들의 민심을 다독이면서 민주당 통합당 주요 지지층인 광주·전남 지역 출신 유권자들의 움직임이 미약한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통합당이 이번 공천에서 전국 정당과 함께 탈(脫) 호남을 내세우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광주·전남지역출신 거주민들의 표심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후보들은 수도권 후보자들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약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과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8호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펍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062)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061)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	---	----------	---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